

### 종합·해설

# 민주 대선주자들 초반 기선제압 올인 “제주·울산을 잡아라” 전력투구

## 선거전 승패 좌우...수시 방문 조직 점검 활동

민주통합당 대선 본경선 후보들이 1, 2회 경선지역인 제주와 울산지역 공약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전국 단위에서 볼 때 인구나 대의 원·당원 비중은 낮지만 제주와 울산의 경선 결과는 기선 제압의 의미가 있어 전체 선거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경선 때 이인제 후보는 제주에서 2위를 하며 대선에 이끈 데 이어 2차 경선지역인 울산에서 노무현 후보가 1위에 올라 대안론의 불을 지폈다. 이어 노 후보는 3차 경선지역인 광주에서 이기며 ‘노무현 바람’을 확산시켰다.

2007년 경선 때도 손학규 후보의 대선에 이끈 데 이어 2차 경선지역인 제주와 울산에서 동시에 실시된 경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승기를 잡았다. 이 때문에 경선 주자들은 틈만 나

면 제주와 울산을 방문, 조직을 점검하고 지지세를 넓히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종영 후보는 지난 4~5일 제주와 울산을 차례로 찾아 우근민 제주지사와의 면담, 울산시장 당선자와의 간담회 등을 소화하면서 표심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그는 해당 지역의 호남향우회 인사들과 두루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지난달 16~17일에 이어 10~11일에도 제주를 찾는다. 제주의 민주당 의원 3명 중 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후보가 1명도 없는 지역인만큼 더 공을 들이겠다는 생각이 다. 문 후보는 이에 앞서 7~8일 울산을 방문했다.

문 후보 측은 9일 “여론조사 흐름상 문 후보가 앞서고 있어 제주와 울산에서도 예상치 못한 선봉을 맞

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후보는 지난달만 해도 22일, 29~31일 등 4일을 합쳐 제주로 전역을 살피기 나왔다. 지난 6~7일에는 울산을 방문했다.

손 후보 측은 제주를 지역구로 둔 김우남 의원이 지지하고 있는데다 중립을 선언한 강창일 의원도 우호적이라는 판단 아래 내심 1위를 노리고 있다. 손 후보 측은 “초반 판세가 전체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부분에 집중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사실상 제주에 캠프를 차릴 정도로 제주에 올인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에 이어 9~10일 제주를 찾는다. 김 후보 측은 서울에 공보·정책팀 등 최소 인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대부분 제주도에다 상주시켰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 측은 캠프에 들어온 김재운 의원, 김 후보의 출마를 촉구했던 강창일 의원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7~8일 제주를 방문

해 공을 들였다. 정 후보 측은 “제주 전제 도민의 43%가량이 호남이어서 초반 기선은 잡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된 직후인 8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32분 동안 선거인단 등록 인터넷 신청자 중 159명이 중복 신청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승남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159명은 선거인단 등록을 위해 자신의 PC에 공인인증서를 새로 설치했던 사람들로 ‘모바일 투표’를 희망했으나 자동으로 ‘현장투표’가 선택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선거인단 등록을 다시 하는 바람에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에 중복으로 등록됐다”며 “문제 발생 이후 데이터베이스(DB) 중복체크 기능을 복구해 현재는 모든 선거인단 등록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여성의원들과 당직자들이 9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대권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트위터에서 ‘그녀’이라고 표현한 이종걸 민주당통합 최고위원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당직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종걸 ‘말 실수’...곤혹스런 민주

### 새누리 윤리위 회부 요구 등 당 안팎 파장 확대

민주당통합이 이종걸 최고위원의 ‘박근혜 그녀’ 발언 여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에서 국회 윤리위 회부를 요구하는가 하면 당내에서도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는 등 당 안팎에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천 헌금 파문과 ‘5·16 발언’ 등을 고리로 새누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후보를 향해 과소공세를 펼치며 기세를 올렸던 민주당 지도부

는 이번 파문이 대선 판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며 곤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동정론으로 연계되면서 보수 세력을 재결집 시키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4·11 총선 막바지에 불거졌던 ‘김용민 막말’ 파문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최고위원의 ‘자숙’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의 ‘오라카락 해방’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9일 ‘그녀’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의 본의가 아닌 표현으로 심려를 끼친 분들께 거듭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신중한 언행으로 활동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 공천헌금 당내 분란 키우나

### 진상조사위 조사 한계...친박·비박 갈등 지속 우려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헌금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으나 별다른 성과없는 속된 감정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박 성향 당 지도부와 비박 주자 측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시작부터 진상조사위의 조사범위와 활동범위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향

후 자체 진상조사가 검찰 수사를 뛰어넘을 성과를 낼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가 자칫 양 진영의 갈등만 키우는 또 다른 불씨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공천헌금 파문으로 코너에 몰린 새누리당은 야당의 거센 공세에 당내 분란까지 한마디로 내우외환에 처할 수

있는 셈이다.

우선 진상조사위 조사범위를 놓고 상당기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와 친박계는 지난 5일 경선주자를 포함한 7인 연석회의 합의대로 의혹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박 경선주자 측은 공천의혹 전방으로 조사를 확대하자고 주장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현실적인 한계도 고민거리다. 계좌추적권·소관권 등이 없어 실제적 진실 규명이 어려운 현실에서 시중에 떠도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박 주자들이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 박근혜 책임론을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라 진상조사위가 당내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친박 일각에선 비박 주자들이 대선 경선 판도를 뒤집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민주 ‘박근혜 후원금·공천헌금’ 맹공

### “후원자 정수장학회·‘유신 관료’ 다수 포진”

민주당통합당은 9일 후원금과 공천헌금 파문 등을 들어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후보의 후원자

들은 정수장학회 관계자, 비리연루자, 유신시대 고위관료로 포진돼 있다”며 “(정수장학회 관계자) 최필립 현 이사장과 그의 장남 장녀 차녀,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으로부터 4500만원, 정수장학회 장학금 출신 모임

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으며, 조카 한유진과 조카사위로부터 2004~2011년 3300만원씩 66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17대 총선 서울 지역 공천신청자 중 한 명이 2000만

원을, 이번(4·11총선)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장모씨가 17대 대선

경선 때 1000만원, 이모씨가 17대 대선 경선 당시 1000만원, 윤모씨가 2008년에 400만원을 내는 등 공천신청자로부터 총 43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분들 중에서 공천받은 사람은 없다”면서도 “(박 후보가) 당 지도부 위치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공천 신청할지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런 후원금은 관리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NPL/특수경매물건

→ 도대체 NPL과 특수물건이 무엇인가?  
→ 왜? NPL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 NPL과 특수물건이 만나면 수익률?  
→ 세금이 전혀 없다는데?  
→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데?  
→ 선착순 4명 한정 / 비법전수  
→ 주1회 3개월 수료 / 회비 550만원  
→ 수료중 투자가 가능 (단독/공동)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 밤성성기능강화제

본 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며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 뮤쿠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준다.

생식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식품이 가진 영양성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제품 속에는 22종의 아미노산, 27종의 무기질, 18가지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어려워 체외로부터 섭취해 주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제품속 단백질이 모두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의 공급원입니다.

한알을 섭취로 1~5일까지 강력하게!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1정을 3~7일 정도로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전화 010-2945-8657  
주문즉시택배/무료배송 농협 707019-56-138536

## 임대&매매 (수익성 최상)

키즈테마카페 임대  
• 뷔페, 파티룸, 뷰티샵 등  
• 면적 : 2,400㎡ (725P)  
• 주차 : 500대  
• 보증금 3억  
• 월 2,000만원

예식장, 상생뷔페 임대  
• 돌잔치, 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 (854P)  
• 주차 : 500대  
• 보증금 4억  
• 월 2,500만원

도심형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 (290P)  
• m당 150만 / 150세대  
• 14억 투자 = 수익9억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1층)

##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아울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대 및 조건조정가능)

##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액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환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